

연중 제31주일

기도서 P. 470 B해

제1독서(신명 6, 2-6)
제2독서(해브 7, 23-28)
복음(마르 12, 28-34)

#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론

“아저씨



나만 참새예요?”

현 유 복 신부

세상에 벨스런 수수께끼가 다 있지만 얼마전 아이들간에 주고 받던 토막 이야기가 생각난다. 전기줄에 참새 두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마리를 포수가 쏘았다. 그런데 총을 맞고 떨어지는 참새가 무어라 말했겠느냐는 물음에 엉뚱하게도 참새 왈(曰), “아저씨, 나만 참새예요?” 그러자 전기줄에 앉은 한마리 왈(曰) “아저씨, 자(저 아이) 아직 안죽었어요”

이 참새들은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들의 화신(化身)이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랑처럼 무겁고 혼란 날랄은 없는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말(對話)속엔 “사랑하는 마음”을 눈꼽만큼도 엿볼 수 없으니 이게 바로 우리-현주소 안에 처(處)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자꾸만 자꾸만 이웃집 담들이 높아가고 나눔을 더디하는 오늘의 매마른 현실속에 그리스도는 더욱-큰 외침으로 사랑을 요구하신다. 따라서 요즘처럼 크리스찬은 자기의 마음과 생명을 다하도록 하느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철저히 요구 받을 때도 없으리라.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것은 아니다. 그 말마디엔 뜨거운 피와 눈물과 고통이 무한히 어터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비천한 인간이 되었던, 하느님의 사랑도 수난과 죽음으로 표시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 행위도 십자가로 나타나야 하리라. 우리는 사랑 그것 때문에 있게 되고(有, 存在), 살게 되고(生), 죽게 되고(봉사, 희생) 죽게 되어야(滅) 하리라.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사랑이란 언어의 공해 안에서 실제로 나누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는 데에 있다. 일과 시간에 쫓기며 배고파 하는 데에 있다. 무엇이 바빠서 님의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는가? 천년을 살아도 부족하고 하루를 살아도 모자랄 일생이라면 잠시 여유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용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월은 위령성월-



## 거 두 는 때

자연적인 계절로 보아 지금은 거두는 때이다. 이제 농부들은 한 해의 땀흘림을 거두어 들인다. 그래서 기쁘다. 그러나 짜증스러움과 고통스러움도 없지는 않다. 어제의 땀흘림이 부족하였으면 적은 수확이 있을 뿐이고, 지난날의 정직한 땀흘림에는 많은 거둠을 얻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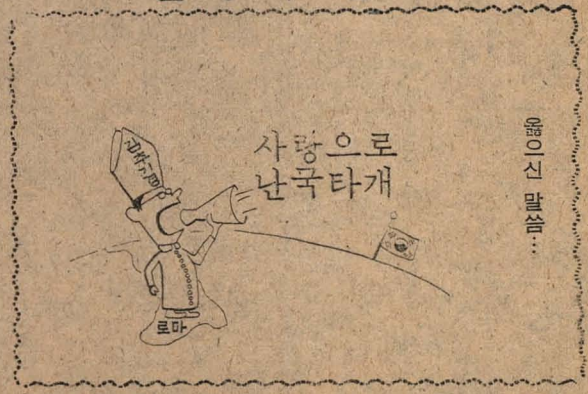
자연은 정직하다. 보리를 심은 곳에서는 보리만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보리를 심고도 쌀을 거두기를 원하는 자는 바로 천치가 아니면 도적일 뿐이다. 정직한 자연은 인간의 노력에 상응(相應)한 댓가를 반드시 치루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는 결과에서 그 노력 여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먼저 우리가 달려야 할 목표(goal)를 정하고,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할 뿐이다. (참조 필립비 3, 12이하) 바로 이것이다. 목표를 향한 달음질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신기루 수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 뒤는 과정(過程)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했느냐를 바라시는 것이다. 알파한 술수(術數)나 부정한 방법이 아닌 것을 원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성월을 지내고 있다. 우리의 기도문은 식사 후마다 죽은이들을 기억하게 한다. 마사때마다 죽은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것도 모자라 성모송을 외을 때마다 “천주의 성모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해 빌으소서”라고 기도한다.

1년 내내 죽음에 대한 기도를 바치면서도 이 11월에는 죽음을 묵상한다. 내가 뿌린 씨앗에 쏘는 내 정성을 묵상하는 것이다. 내 죽음의 결과는 내 삶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 숲 정 이 산책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월은 위령성월-



□ 위령성월에 읽는 추도사 □



# 자기의 전부를 불태워 남을 밝혀주고 떠나신 윤 형중 신부님

- 김 수 환 추 기 경

—민족 구원에 당신 전부를 바친 가톨릭 수호자,  
끝내는 두 눈까지 바쳐 의로운 빛을 전하신 사랑의 사제.

제가 직접 신부님을 추도관에 모신 마지막 11년, 그 중에서도 최근 수년은 모든 것에서 진정 해탈된 맑고 깨끗한 삶을 가지셨습니다. 이 기간에 신부님이 지니신 것은 오직 <사랑>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 거례에 대한 사랑,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 한 마디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신부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치 않으시고, 오직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당신의 무엇을 조금이라도 주시는 청빈(淸貧)의 삶을 이어 오셨습니다.

신부님이 만년(晩年)에 민주회복 국민회의에 참여하시고, 또 한 때 그 대변인이 되신 것도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라든지, 사회적 명성에 대한 욕망에서가 아니라 오직 이 나라와 이 거례를 사랑하시면서 억눌리고 약한 자, 소리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도 대신 되시겠다는 사랑에서였습니다.

이런 신부님의 정신은 그 유언에서 잘 드러납니다. 신부님은 당신 방의 가재도구래야 별것이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언에서 먼저 밝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교구 경리국에 맡겨놓으신 얼마되지 않은 현금중에서 백만원은 국제 사면위(Amnesty International) 한국 위원회에 보내달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당신이 임종하실때까지 돌보아 주신 분과 간호원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또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당신을 위한 미사예물에 써달라는 것입니다.

국제 사면위 한국 위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투옥된 분들의 사면(赦免)과 또는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물질양면으로 돕는 기구입니다. 신부님이 이 위원회에 당신이 남겨놓으신 금전의 거의 대부분을 내놓으신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대로, 정의를 위해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 이들의 고통을 형제적인 사랑으로 나누고, 그 사랑에서 이들을 돕겠다는 복음적 정신에서 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을만큼, 이 나라 이 사회가 의롭고 밝으며, 약한자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나라와 사회되기를 비는 일념에서 였다고 믿습니다. 뿐더러 신부님은, 이 유언에서도, 당신의 병이 무거움을 아시고 입원하시기를 사양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이 뜻을 존중하면서도 그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입원시키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입원을 사양하신 이유는 역시 남을 생각해서였습니다. 당신 자신은

불치의 죽을 몸인줄 이미 잘 아시고, 그러한 당신이 입원해서 병원의 침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병원 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신 뜻에서였습니다.

뿐더러 당신때문에 남이 수고하는 것도 마음 괴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 시신(屍身)을 모신 곳에서는 누구도 밤샘을 해서는 안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제가 따를 수 없었습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같은 신부님의 배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시고 당신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은, 남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유서의 말씀중 무엇보다도 감명깊은 것은 「내가 누구의 마음을 상해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바이니 용서해 주시고, 내가 누구에게 용서해줄 것이 꼭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하여 줍니다. 이제 나는 먼저 떠나갑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짧은 말씀속에 우리는 신부님의 마음에 그 복음적인 가난, 겸손, 그 사랑과 자비, 용서, 그리고 내맡기는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같은 정신에서 신부님은 당신 자신의 일종의 날을 평화속에서 고요히 맞이하셨습니다.

신부님이 병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고맙습니다」였습니다. 이 말씀은 임종하시기 바로 전날 저녁 병상에서 당신을 둘러 서있는 분들에게 세번이나 거듭하신 말씀이었고, 다음날 아침 임종까지 더는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최후로 남긴 이 「고맙다」는 말씀은 그 방에 있는 분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겠지만, 당신이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고 믿습니다. 뿐더러 삶 자체를 하느님의 선물로 받으시고, 죽음까지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 들이시는 데서 감사드리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부님은 당신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마음으로부터 귀기울이시며 고요히 기도속에 병상의 마지막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한 때, 이 사회의 어두움을 밝히고자 뿔뿔 타오르는 햇불과도 같았던 윤신부님은 모닥불처럼 고요히 타들어갔습니다. 임종의 병상에서 초차 청순하고 따뜻한 인성미를 풍기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고요히 태우셨습니다. 이제 이 모닥불은 꺼졌습니다. 실명(失明)한 이에게 광명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두 눈까지 바치셨듯이 남을 밝혀주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마지막 순간까지 남겼음이 불태우고 사그라지듯 꺼졌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이 평생을 통해서 당신 삶 전부를 불붙이신 그 사랑의 불꽃, 그 진리와 정의의 불꽃, 그 복음의 불꽃은 많은 이의 가슴속에 계속 타오를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협회의 금상 획득!

## 한국 온수 보일러

난방·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공해방지

### 한국 流 온수 온돌 호남총판

이리 ㉠ 8629 ㉡4415 군산 ㉢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전주 지점 모집

### 크로레라一元?

- ★ 약 알카리성 특수 고단백 식물성 영양식품으로 여러분께 건강과 활력을 드립니다
- ★ C.G.F(성장발육 촉진인자)라고 하는 특수 물질이 들어 있어 스테미너 증강, 항균력 배양, 환자의 건강회복식, 허약 아동의 발육촉진, 여성의 피부미용에 좋은 약 알카리성 체질개선 식품으로 전국에 철찬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앞 T.3-2611  
이리시 주현동 동사무소앞 T.2-7641  
이 석 구(토마스 아퀴나스) 배상





## 79년 교구 평가회 有感

지난 10월 22일 가톨릭센터 회의실에서는 교구내 모든 사제와 수도자 및 각 본당 평신도 대표 100여명이 모여 79년 한 해를 뒤돌아 보면서 교구의 전반적인 활동을 정리해 보는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란, 어느 잘못만을 지적하여 한편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난 해를 뒤돌아 보고 앞으로를 위한 보완과 대책을 찾으므로써 보다 나은 발전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돋움의 되어야 할 것”이라는 교구장님의 말씀에 이어 먼저 10월 10일에 실시됐던 교구청 감사결과 보고가 있는 후, 이어서 교구내 각 산하단체와 각 본당에 대한 확인지도 결과가 총괄적으로 보고되었다.

대대적인 교육활동 전개와 각 본당의 봉헌의식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고, 특히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전개-지대한 성과를 올린 반면, 교회의 중대한 사명인 선교활동이 부진했고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 너무나 저조했음이 지적되었다. 특별히 교회내의 내적인 세신과 사목체제 정비가 절실하게 요구됨을 느끼면서 이를 80년대의 계획수립에 반영키로 했다.

## 교구 추계 사제총회 개최-11월 13일 예정

지난 10월 22일에 있었던 79년 교구 전반적인 사목에 대한 평가에 준한 80년도 대비, 계획수립과 사목방향을 결정하는 추계 사제총회가 13일 교구청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이미 모임을 가졌던 교구청 실무진들의 진지한 토론과, 사목위원회의 및 참사회회의 예산확정회의, 또한 각 지구별로 개최된 지구회의의 결과를 종합하여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를 중심으로 대망의 80년도의 교구 사목계획을 수립하는 중대한 회합이다. 특별히 이번 총회는 81년도의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이하는 계기에 사제, 수도자 및 평신도의 내적세신을 기하고 사목적 체제정비를 갖추어 회의의 중점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이 중대한 사제총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신자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어야 할 것이다.

## 교리교사 심포지움 예정대로 개최키로...

교구내 교리교사들의 신앙적 자질과 인격도야를 위한 심포지움이 계획대로 11월 10일 ~11일(1박 2일) 센터 강당에서 개최된다. <신앙과 인격>이라는 주제 아래 교구 교리교사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에는 특별히 진교수녀님과 전교사들도 참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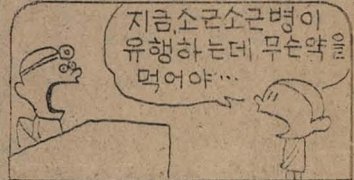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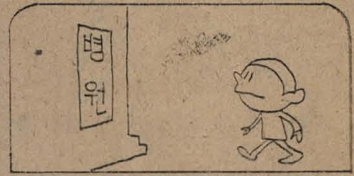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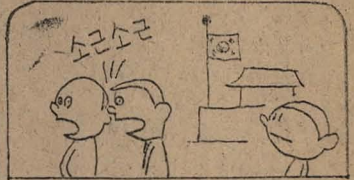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 있지 않는가?” 지도신부님의 노심조사(勞心焦思).

“교리교사들이여, 모두 같이와서 진지하게 배우자”

<주제와 감사>

- ① 인간의 가치관 형성- 권 선호 신부(사례지오 수사신부)
- ② 主 바라기- 김 승중 신부(예수교안회 신부)

## 요심이 (327) 김병오



### 직원 모집 공고

1. 파티마 사무장 : 1명
2. 구비서류 : ① 자필이력서  
② 신원증명서 1통
3. 접수기간 : 11월 10일 오후 2시
4. 전형방법 : 면접
5. 면접일 : 11월 11일 오후 2시

파티마 본당 사도회장

남성의 멋을 드립니다

## 베드루네 집

(아카데미 백화점 A5호)

안 철 만(베드루)

\*교우님들의 아낌에 감사드립니다

동력자원부 신규허가(제10호)

수북표 온수보일러, 주철제

시공, 수리, 상담

全國總販(代理店 募集)

## 수북표 大同工業社

전화 ② 8661

대표 李仁石(미카엘)

개업안내

테이프·레코드·카세트·DP&E

## 숲정 이 음악사

홍지서림 남쪽편

전 대 수(베드루)

★ 꼭 한번 들려주세요

맛사지 전문, 여드름 치료제, 오존 맛사지, 쪽집, 제란, 팩

## 아모레 아카데미 체인점

(아카데미 상가)

최 진 순(테레사)

전화 6-0371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 경 미 장 원

(신부회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 역전 앞

최 윤 경 (유리안나)

전화 : ② 8653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작곡 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③ 8188 (자 ③0369)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추계 사제총회...11월 13일(화) 날자 변경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교리교사 종교 심포지움(분당·공소 합동)...11월 10일(토)~11일(일), 카톨릭 센터에서 교사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참가비: 전주(1,600원), 기타(1,300원)
3. J.O.C 정기총회...11월 4일(일) 9시, 전주 중앙성당에서
  - 지정인들을 위한 사상강좌...11월 15일(목) 오후 7시30분 주제-갈라디의 종교이론, 강사-박도석 신부
  - 알림: 교우들의 요청에 따라 순경이에 <교리상식>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궁극하게 여기는 「교리내용」이나 「교회상식」, 「신자의 본분」, 「교회법 관계 등」에 대해 먼저 질문해 주시면 답을 준비하여 신년도부터 신고자 합니다. 편집 계획상 필요하오니 11월중으로 질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복자 율화부(2만원)·유마리아(5천원)
  - 군인들을 위한 묵주성금...중앙 익명(5천원), 정음 이요안나(1만원)·유골름바(1천5백원)·서수산나(5백원)·백근술시아(2백원)·나래희(1만원), 복자 율화부(2만원)·유마리아(5천원)·황베로니카(5천원), 노송 성서모임(5천원)·정안엘라(5천원), 창인동 김진취(1만원)

#### (중앙)

주임 신부 서 울 복  
보좌 신부 왕 해  
보좌 신부 설 태  
사도 회장 이 북 석

전화 ③3651  
3874

1. 프란치스코 3회 피정: 4일(일) 오전 9시부터, 강당
  2. 제 2차 성령세미나: 5일(일)부터 9일(금)까지  
장소: 강당, 시간: 저녁 7시30분~11시30분
  3. 미사시간 변경: 5일(일)부터 새벽미사: 오전 6시30분, 저녁미사: 저녁 7시30분
  4. 환자 영성체: 7일(수) 오후 2시
  5. 어머니합창단 단합대회: 8일(목)  
시간: 오전 9시30분
  6. 성경, 성가집 할인판매  
(신약성서: 700원, 성가집: 1,300원, 중앙분당 신자에 한함)
- 지난주 봉헌금: 290,466원

#### (서학동)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황 인 구

전화 ②2276

1. 현양대회 기념묵주 사부실에서 판매함
  2. J.O.C 남자회합: 매주(목) 7시30분
  3.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 화요일 오후 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202,215원

#### (노송동)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공 열  
사도 회장 김 성 록

전화 ⑦7032

1. 신년도 활동계획서 제출: 본당내의 모든 활동단체의 회장님은 신년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11일(다음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세요
  2. 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애령회 현 간부님들은 전원 참석하세요
  3. 성미운동에 협조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성미를 접수합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4. 토요 성령기도회: 매주(토) 오후 7시30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58,270원

#### (숲정이)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전화 ⑦3766

1.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우리보다 먼저가신 선조들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하고 미사 봉헌합니다
  2. 11월 2일: 위령의 날, 합동위령미사 봉헌 미사 3대있음
  3. 11월 3일: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4. 11월 4일: 사도회 월례회
  5. 11월 6일: 주일학교 후원회 월례회
  6. 신축기금 내주신 분: 김은택·윤석도·이초자·장의선·분당 학생회 일동(각 5만원), 박은혜·장금순(각 2만원), 이종희·강씨할머니·이씨(각 20만원), 김경주·조희순·여운창·이만열·이복남·정부주·백미희·배순애·박태근·김봉래·문영희(각 10만원), 김씨(6만원), 오순애(25만원), 장명수(1만원), 김중옥(5만원), 이순례(2만5천원), 복기남(5천원), 원주강씨(3천원), 김득수(4만원), 누갈다부녀회(50만원), 유한옥(1만5천원), 김기만(1만원), 장명수(1만원), 김중옥(5만원), 이병호·박동수(각 50만원), 백순자(3만원), 백옥남(1만5천원), 박기중(5만원)
- 지난주 봉헌금: 144,820원

#### (덕진)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전화 ③2182

1. 미사시간 변경: 주일-오전 6시·8시30분·10시, 오후 3시·7시 평일-오전 6시, 화-오후 7시, 금-오전 10시, 토-오후 7시  
※ 평일 저녁미사는 당분간 없습니다
  2. 축! 신임 사도회장: 양 알브르시오(상열) 형제 될고 도와 발전하는 분당을 만듭시다
  3. 밀린 봉헌금 납부 바람: 분당운동에 협조합니다  
10월결산: 총수입-7,435,372원, 중지출-7,285,919원 잔액-149,453원
  4. 주일미사에 늦지 맙시다. 성서·성가집은...
  5. 맥의 귀영들이들 교리반으로... 교리-주일 오후 2시, 미사 3시
  6. 중·고생교리 및 성가 교리-주일 10시, 성가연습-토요일 오후 5시
- 지난주 봉헌금: 30,495원 교무금: 115,160원

#### (전동)

주임 신부 김 병 기  
보좌 신부 김 기 석  
사도 회장 유 수 종

전화 ③3222

1. 사도회: 저녁미사 후
  2. 유아세례: 8시만 미사후
  3. 미사시간 변경: 주일-오전 5시만, 9시, 10시, 오후 7시, 토요일 학생미사-5시 평일-오전 5시만, 7시
  4. 가정심방: 11월 13일부터 (동 배정은 다음주에)
- 지난주 봉헌금: 309,270원

#### (복자)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전화 ⑤238

1.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 봉헌합니다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복자부녀회: 11월 7일(수) 오전 10시 부녀회원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4. 영화상영: 오늘 7시 저녁미사 후(구세주) 빠짐없는 관람 바랍니다
5. 교회용 크리스마스 카드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 (파티마)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전화 ②0915

1. 사도회 확대회의: 11월 11일 공식미사 후 79년도 사업결과 및 8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건반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는 확대회의에 제 단체장, 각 구역장, 사도회 임원들은 모두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61,960원